

민주, '김건희 특검·부자 감세' 전방위 공세

민생우선 견지 대안야당 부각 이재명 '국민 기만 정치 안돼' 국조 대상 '영빈관 신축'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논란은 물론 정부의 '부자 감세' 예산안과 공공기관 민영화 움직임, '김건희 특검'을 고리로 전방위적 공세를 가했다.

정기국회 주도권 싸움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대대적으로 부각, '대안 야당'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박이 지속되는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당은 '민생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은 우선 예산·입법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부자 감세는 막아내고, 민생 예산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조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며 "원내에서도 반드시 관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대여 논란을 거론하며 "자기는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차고, 영빈관을 새로 만들

어 고혈을 짜려 했다"며 "서민 예산을 모두 살려내는 정기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3번째를 공개한다"면서 "국방 예산 중에 군 장비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 원을 각각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다"며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갔는데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해버렸다. 선배 장병의 신발을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생, 미래와 관련이 없는 무책임한 예산 같은 경우 허투루 양보할 수 없다"며 "민생

예산은 과감히 늘리고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논란도 거둬 제기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에 '영빈관 예산 편성'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 최고위원은 "영빈관 예산 내용을 보면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적혀 있다. 이 영빈관 예산을 누가 집어넣었는지 꼭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부 공공기관 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견제구도도 잇따랐다.

이 대표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민영화 이슈가 다

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우회적 방법으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내 기구인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외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론은 협치와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적 탄압에만 몰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왜곡된 국정운영부터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목소리부터 깊이 새기라"고 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법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폭주 기관차처럼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권 수사와 야당 수사에 몰입하고 있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주가지작 의혹 영상 보는 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원내사령탑 관계설정 주목

주호영·박홍근 '협치' 전망 첫 정기국회 '강대강' 의견도

국민의힘이 19일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선출하면서 향후 여야 원내사령탑의 '공합'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원내대표 모두 합리적 성품을 갖춘 경륜 있는 정치인으로 파국적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이 나오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 여야 모두 사활이 걸린 만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관계 설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예의를 갖춰 대우하고, 박 원내대표 역시 사석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주 원내대표를 꼽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은 상황이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당 지도부 전열을 정비한 여당은 거대 야당의 '창'을 잘 막아 내면서 집권 초

기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인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은 다수당으로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부각하려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두 원내대표 모두 합리적이야, 여야 협상에 임할 때는 전투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두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접촉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경북 울진 출생으로 대구에서 내리 5선을 했고, 박 원내대표는 고흥 출생으로 서울 중랑구에서 3선을 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재연장해야"

민주 민생대책위 촉구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9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대책위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 등 대책위원 6명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처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금융위에 전달한 성명서에서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잡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덜어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

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당장 보름 앞으로 대출 만기 기한이 다가왔다. 정부·여당은 더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타들어 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안을 덜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당국의 우려 지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 결정 때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해 소상공인이 계획을 세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또한 인상된 금리 수준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 조정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방위, 문 전 대통령 증인채택 공방

배후 지시 의혹 등 설전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날선 설전이 오갔다.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의힘 측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한 것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보고 아주 놀랐고 많은 우려와 당황스러움을 표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구백 의원은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오만한 권력·권리의 남용"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인) 신원식·김병주 간사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의 생각이 아닌, 배후의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다"면서 "(민약)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제가 맞지 않으면 저는 (증인 채택 논의를) 안 할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